

# 곡성군, 문화예술로 빛날새 모습 기대

### 연말까지 4억 들여 아트콜라보 프로젝트 추진

### 한국실협예술정신과 위탁협약...40여 명 참여

곡성군이 올 연말까지 총 4억 원을 들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곡성 아트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예술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곡성군이 주관한다.

곡성군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실협예술정신(대표 김백기)과 위탁협약을 맺었다. 프로젝트에는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를 비롯해 임근우, 문정규, 김석환, 변영환, 다음, 로

즈박 등 장르별로 명성 있는 미술가 40여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곡성레저문화센터와 기차마을전통시장, 강빛마을에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게 된다. 곡성레저문화센터를 중심으로 LED 조명을 활용한 아트벤치 12점과 곡성 대표 캐릭터 레이 조형물 등 4점의 조형물이 설치된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간판에는 미디어 아트 작품이 설치된다. 작품에는 '나란히 흐른다'라는 주제로 전라선 기차길과 섬진강, 장미, 토란 등 곡성의 대표 상징물이 역동적으로 표현될 예정이다.

죽곡면에 위치한 강빛마을에는



섬진강을 따라 나란히 이어지는 기차길의 서정적인 풍경을 디지털 미디어로 구현한다.

'마을, 미술을 입히다'라는 콘셉트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마법사 방, 장미하우스, 몽환의 여인방, 돈벼락방, 구름뭉고기 방 등 19동의 건물에 테마가 있는 하우스갤러리가 세워진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조형선을 지그재그로 연결한다.

밤에는 별빛처럼 빛을 발하고, 낮에는 깃발 미술 등 다양한 설치미술

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대형 장미 조형물 등도 설치된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김백기 감독은 "프로젝트를 통해 곡성군이 청정곡성에서 문화곡성으로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 최형식 담양군수, 내년도 국비확보 '쟁걸음'

### 국립한국정원문화원 등 예산정책사업 반영 위한 총력전

담양군이 내년도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국립한국정원문화원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서동용, 조오섭, 윤영덕, 박홍근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생태정원도시 담양군의 담양다운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국립한국정원문화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공공격리시설 건립과 국도 29호선 백동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담양 금성산성 문루 복원공사 등 당면 현안과제들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한국정원문화원은 한국 정원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정원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한국형 정원 표준모델 개발, 정원 전문가 육



성과 더불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담양을 청정원 생태정원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국비 확보는 필수"라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3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이번달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되며, 담양군은 마지막까지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 화순 동면 구암마을, 농어촌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지구' 선정

화순군은 화순 동면 구암마을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가'에서 '우수지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사업이 완료된 55개 지구에 대해 평가한 결과, 화순군 구암마을은 전국 우수지구 4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개조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와 안전시설 정비, 생활 기반 확충,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추진한다.

화순관광소가 있는 구암마을은 옛 탄광촌의 자산과 역사를 품고 있는 마을로 사업 신청과 준비·선정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냈다.

구암마을은 협소한 마을 안길 확장, 교량 정비, 담장 정비, 지붕개량, 마을 회관 리모델링, 소공원 조성 등 마을 경관과 기초 생활환경 등을 개선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장성군 삼서면 "잔디 불법 소각 안 됩니다"

### '더 푸르른 삼서 만들기' 캠페인

장성군 삼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잔디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더 푸르른 삼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삼서면은 전국 최대 규모의 천연잔디 생산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잔디 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해 야기되는 화재 및 환경오염 문제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삼서면 행복복지센터 앞에서 홍보문구가 새겨진 어

깨미를 두르고 가두 방송을 진행했다. 또 홍보 물품을 차량 운전자들에게 나눠주는 승차 홍보(드라이브 스루)도 펼쳤다.

주유상 삼서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잔디 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잔디 부산물 불법 소각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면서 "캠페인을 통해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되새기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곡성군, 파티플래너 양성과정 종강

### 'Farewell Party' 개최

곡성군이 지난 14일 곡성군평생학습센터 파티플래너 양성과정 종료행사로 뚝방마켓에서 'Farewell Part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파티플래너 과정은 곡성군이 지난 10월부터 처음 진행했던 새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었다. 18명의 교육생

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파티플래너의 꿈에 도전했고 그 중 13명이 (사)한국 파티이벤트협회에서 발급하는 파티플래너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종강을 맞아 수강생들은 크리스마스 콘셉트에 맞춰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며 그동안 배운 것들을 모두 선보였다.

곡성=양혜영 기자



# 구례군, 제12기 농업인대학 졸업식 개최

### 생활농업반 과정운영으로 농업전문인력 61명 배출

구례군은 전문 농업인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한 '제12기 구례군농업인대학'에서 농업전문인력 61명을 배출했다.

구례군은 지난 12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생활농업반 졸업생이 함께한 가운데 제12기 구례군농업인대학졸업식을 가졌다.

구례군농업인대학은 5월6일 개강해 10월30일까지 6개월간 생활농업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총20회 실시하였다.

한 졸업생은 "코로나 19로 교육 이수시간이 줄어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공백이 최소화되었다"며 "현장실습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와 농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더욱더 뜻깊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는 코로나 19, 수해피해, 이상기온으로 그 어느 해보다 우리 농업인이 힘든 시기지만 앞으로 농업인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